

CEO Information

2007.12.12. (제633호)

2008년 중국경제에 대한 8가지 질문

목차

요약

I. 2008년 중국경제의 의의

II. 2008년 중국경제를 둘러싼 8가지 질문

작성 : 정상은 수석연구원(3780-8373)
peking@seri.org
정호성, 劉金賀, 張曉亮, 張沈偉
감수 : 박승호 연구위원
(86-10-6566-8100 ext. 2900)
sam7.park@seri.org

《 요약 》

중국경제는 2001년 WTO 가입 이후 6년간 '고성장-저물가' 시대를 구가했다.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 외국자본 유입 등에 힘입어 2006년 개별국가로는 처음으로 '외환보유고 1조달러'를 돌파했고, 2007년에는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중국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은 WTO 가입 이후 일관되게 추진된 시장개방 및 성장우선주의 경제정책이 세계경제의 호조세와 맞물렸기 때문이다. 한편 자산가격 급등, 환경오염 및 도농간 소득격차 등 각종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저임금 가격경쟁력도 중국산제품에 대한 품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이다. 중국경제에 있어 2008년은 '글로벌 경제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를 시험받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글로벌 경제강국'의 조건인 고성장세 지속 및 경제체질 개선여부와 관련해 2008년 중국경제를 둘러싼 8가지 질문을 검토하였다. ① **고성장 정책을 지속할 것인가?** 각종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2008년 중국정부는 고용창출, 사회안정 및 낙후지역 개발 등을 위해 고성장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2008년 경제성장률은 10.7%로 전망된다. ② **중국 發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과연 올 것인가?** 최근 물가급등은 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서비스나 공산품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고, 생산성향상을 감안한 단위노동비용도 하락하고 있다. 200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2%로 전망되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다. ③ **자산가격 버블은 붕괴될 것인가?**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은 2008년에 조정기로 접어들면서 상승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자산가격 급락은 은행 부실화나 사회불만으로 연결될 수 있어 중국정부가 가격 안정에 주력할 것이고 유동성 공급과 주택수요도 지속되기 때문에 버블붕괴 가능성은 높지 않다. ④ **위안貨의 切上 가능성 및 그 幅은?** 2008년에도 2,900억달러의 무역흑자가 예상되어 선진국의 절상압력은 거세질 것이다. 그러나 경제안정을 중시하는 중국정부의 의지가 확고해 절상폭은 7~8%에 그칠 전망이다. ⑤ **외국기업의 경영환경은 더욱 나빠질 것인가?** 외국기업과 중국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외국기업이 환경오염과 무역마찰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외국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08년에 노동계약법과 반독점법이 본격 실시되고 환경규제도 강화되어 경영환경은 더 악화될 것이다. ⑥ **중국 금융자본의 해외진출은 본격화될 것인가?** 적격해외기관투자가(QDII) 등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 완화와 국부펀드인 中國投資公司(CIC)의 설립 등으로 차이나 머니의 해외진출이 본격화될 것이다. ⑦ **중국기업의 글로벌화는 가속화될 것인가?** 2008년 화웨이 등 중국 우수기업들은 정부의 글로벌화 장려책, 베이징올림픽 등을 계기로 글로벌 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 등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할 전망이다. ⑧ **베이징올림픽은 국격(國格) 제고의 기회가 될 것인가?** 올림픽을 중국의 환경개선, 첨단기술 및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어 환경오염국, 인권탄압국 등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느 정도 쇄신될 것이다.

I . 2008년 중국경제의 의의

WTO 가입 이후 고도성장 궤도에 본격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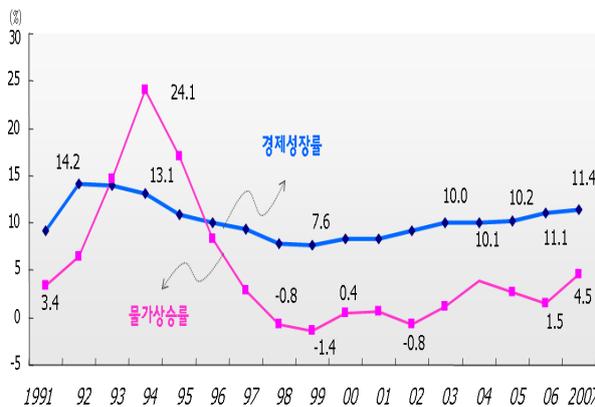
□ 중국경제는 2001년 WTO 가입 이후 6년간 '高성장-低물가' 시대를 구가

- 2002~07년간 연평균 10.3%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면서도, 2.1%의 비교적 낮은 물가상승률을 유지

- WTO 가입 당시 '자국시장을 외국기업에게 내줄 것' 이라는 내부의 우려를¹⁾ 불식시키면서 세계를 상대로 막대한 외화를 획득

·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 외국자본 유입 등에 힘입어 중국은 2006년 개별국가로는 사상 최초로 '외환보유고 1조달러'를 돌파

중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주: 2007년 경제성장률과 물가는 연간 추정치, 외환보유고는 1~9월 통계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중국의 외환보유고 추이



□ 특히 2007년 GDP는 3조 2,000억달러(추정)로 WTO 가입 6년만에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2001년 대비 3단계 상승)

- 세계경제 내 중국경제 비중 : 2001년 3.7% → 2007년 6.4%

¹⁾ 중국의 언론들은 '늑대가 온다(狼來了)'라는 표현으로 WTO 가입에 따른 개방의 부작용을 우려

- 2007년 수출규모도 1조 2,115억달러로 2001년 대비 4.5배나 증가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2위로 부상할 전망(무역규모로는 세계 3위)
- 2002~07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 29.5%

국가별 수출규모 추이

(단위: 억달러)

순위	2002년	2003년	2004년	2006년	2007년(E)
1	미국(6,932)	독일(7,421)	독일(9,118)	독일(11,110)	독일(12,390)
2	독일(6,130)	미국(7,237)	미국(8,165)	미국(10,371)	중국(12,115)
3	일본(4,168)	일본(4,719)	중국(5,933)	중국(9,693)	미국(10,516)
4	프랑스(3,311)	중국(4,384)	일본(5,658)	일본(6,468)	일본(7,245)
5	중국(3,257)	프랑스(3,921)	프랑스(4,517)	프랑스(4,897)	프랑스(5,095)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DB

- WTO 가입 이후 일관되게 추진된 시장개방 및 성장우선주의 경제정책이 세계경제의 호조세와 맞물려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을 견인
 - 중국정부는 WTO 가입시 내걸었던 개방 약정을 대부분 조기 이행²⁾
 - 개혁개방 이후 덩샤오핑(鄧小平)이 시작한 성장우선주의 경제정책을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중단없이 지속

중국의 성장우선주의 정책

- ▷ 덩샤오핑(鄧小平)은 개혁개방 초기인 1978년 '黑猫白猫論'과 '先富論'을 제기해 성장우선주의를 표방
- ▷ 장쩌민(江澤民)은 1989년 집권 후 덩샤오핑의 성장우선주의 노선을 승계했고, 후진타오도 '고성장 지속'이라는 대전제 하에 균형발전을 추진
 - 2007년 당대회에서 후진타오는 경제운영 방침으로 '又好又快(양질의 빠른 성장)'를 제시해 여전히 성장을 중시하고 있음을 표방

²⁾ 지적재산권 등 일부를 제외하고 관세율 인하, 자동차시장 개방, 금융시장 개방 등을 2005년에 완료

2008년은 '글로벌 經濟強國' 진입의 分岐點

- 중국은 최근 금융불안 등으로 위축된 미국 대신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으나, 지난 6년간 고도성장에 따른 부작용도 점차 가시화
 - 자산가격 급등, 인플레이션 조짐, 환경오염 및 都農간 소득격차 등이 부작용의 대표적인 예
 - 都農간 소득격차 : 2.89:1(2001년) → 3.28:1(2006년)

- 한편 세계시장에서 중국産제품에 대한 품질문제가 불거지면서 저임금에 바탕을 둔 가격경쟁력도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
 - 2007년 세계 각국에서 중국산 완구, 타이어, 치약 등의 품질문제가 발생하면서 'Made in China'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훼손
 - 중국 내에서도 제품 불량으로 대량 리콜이 불가피해지자 기업주가 자살하는 등 품질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야기

- 중국경제에 있어 2008년은 '글로벌 經濟強國'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를 시험받는 分岐點이 될 듯
 - WTO 가입시의 개방 약정을 대부분 완료하고,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축적함으로써 글로벌 경제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는 구비
 - 개방 약정 이행에 대한 미국 등의 압력 때문에 중국은 지금까지 적지 않은 제약을 받아 온 것이 사실
 - 새롭게 출범하는 후진타오(胡錦濤) 2기 지도부는 고도성장의 부작용을 치유하면서 질적 발전과 글로벌화의 진전을 위해 '科學發展觀'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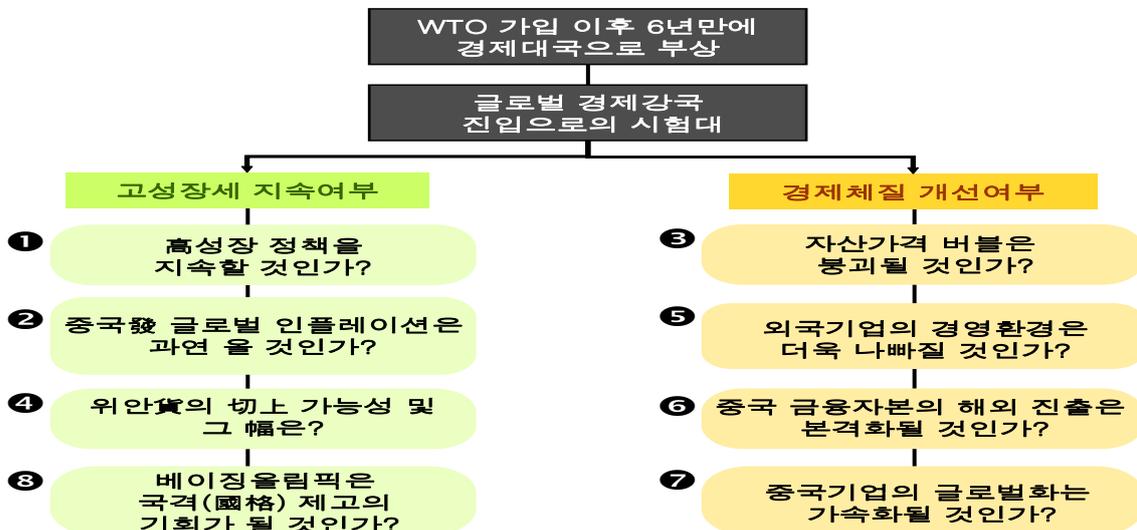
후진타오의 정책이념 : '科學發展觀'

- ▷ 환경파괴, 자원낭비, 소득격차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 과거의 성장위주 정책을 '非과학적' 방식으로 규정하고, 양적 성장의 부작용을 치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구조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親환경 · 高효율의 '科學發展觀'을 제시
 - '사스(SARS)' 창궐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2003년 10월에 후진타오 주석이 직접 제기했으며, 2007년 10월 제17차 당대표대회에서 당 헌법에 삽입

□ '글로벌 經濟強國'의 조건인 고성장세 지속 및 경제체질의 개선여부와 관련된 질문은 8가지로 구분 가능

- 각종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高성장정책을 지속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화두
 - 위안화 절상, 중국發 인플레이션, 베이징올림픽 이후의 중국 등도 세계적인 관심사
- 자산가격 상승세의 지속, 외국기업의 경영환경 변화 등은 중국경제의 체질 개선이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
 - 중국기업 및 금융의 글로벌화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

2008년 중국경제에 대한 8가지 질문



II. 2008년 중국경제를 둘러싼 8가지 질문

1. 고성장 정책을 지속할 것인가?

고도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가시화

- 수년간 10%가 넘는 고도성장을 구가하면서 소득격차 확대, 환경파괴, 자산가격 폭등을 비롯한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이 노정
 - 지니계수가 위험수준(0.4)을 넘어서고 연해와 내륙간 소득불균형이 심화
 - 지니계수 : 0.24(1984년) → 0.39(1995년) → 0.47(2006년)
 - 2006년 상하이(연해권)의 1人當소득은 꾸이저우(내륙권)의 13배
 - 제조업 위주의 성장에 따른 환경파괴 및 자원낭비도 심각한 수준
 - 중국의 이산화황 및 오존 파괴물질 배출량은 각각 세계 1위
 - 특히 주택가격을 비롯한 소비자물가가 급등하며 공산당의 핵심기반인 농민과 근로자의 불만이 팽배
- 고도성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최근 중국정부도 "지나친 경기과열은 막겠다"는 의지를 시사하는 일련의 정책을 발표
 - 2007년 12월 3~5일 中央經濟政策會議에서 '경기과열 방지(防過熱)', '인플레이션 억제(防通脹)' 및 '민생 중시(重民生)'를 2008년 경제 운영의 기본방침으로 결정
 - '科學發展觀', '조화사회'³⁾ 등을 강조하는 후진타오 2기 지도부도 질적 성장과 분배를 중시

³⁾ 조화사회(和諧社會)는 빈부격차, 지역간 불균형 등 경제성장에 따라 파생된 모순을 해소하는 것

2008년에도 고성장 정책은 지속될 전망

- 전년(11.4%)에 이어 2008년에도 10.7%의 높은 경제성장률이 전망되는 등 고성장 정책은 지속될 전망
 - 후진타오 2기 지도부가 제시한 '2008년 8대 경제과제'⁴⁾의 제1 과제는 '안정적인 경제발전의 유지'(분배보다는 성장을 우선시)
 - 국가정보센터(국책연구기관)의 2008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0.8%

후진타오 2기 지도부는 分配優先主義인가?

- ▷ 후진타오 2기 지도부의 핵심 계파인 공산주의청년당派는 분배성향이 비교적 강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그 근거는 취약
 - 이들의 정치적 기반이 주로 내륙지역이므로 국토의 균형발전에 관심이 있을 뿐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시한다고 하기는 어려움
- ▷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이며, 후진타오의 최측근인 리커창(李克強)의 경우 '분배'라는 용어를 아예 쓰지 않고 있음

- 고용창출, 사회안정 및 낙후지역 개발 등을 위해서라도 아직은 고성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
 - 도시로 밀려드는 농촌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해 고성장이 필요하고, 강력한 건축정책은 고용시장 붕괴 및 사회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음
 - 2006년 공식적인 도시실업률은 4.1%이나 실제로는 10%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취업을 준비하는 인구만도 1억명에 달할 정도
 - 서부내륙 등 낙후지역 개발이 시급하고, 인당 GDP도 아직 낮은 수준
 - 2006년 중국의 人當 GDP는 2,012달러로 미국의 4.6%에 불과

⁴⁾ 여타 8대 과제는 농촌경제 발전, 산업고도화, 에너지 절감, 지역간 협력발전, 민생개선 등

2. 중국發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과연 올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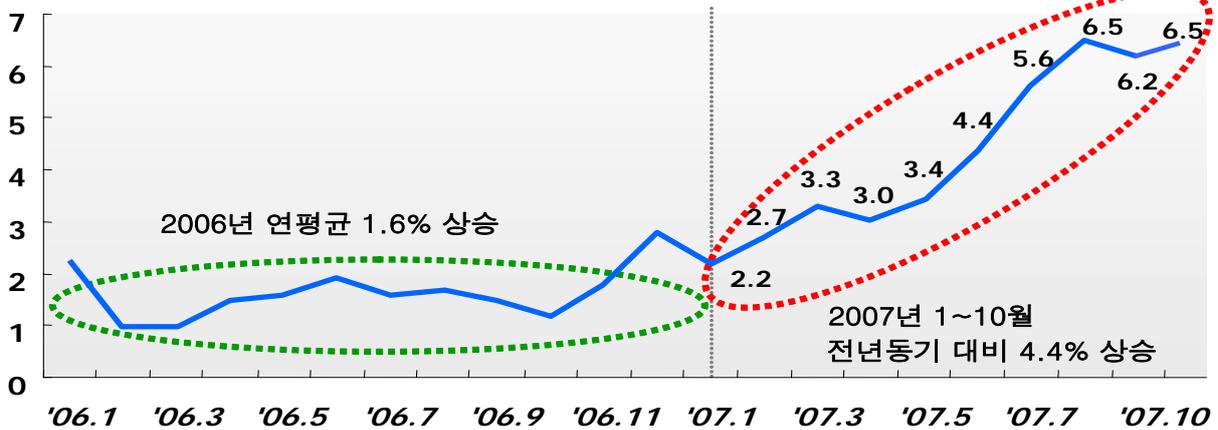
중국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산

□ 연간 1%대에 머물던 소비자물가가 2007년 하반기 이후 6%대로 급등

- 1~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 대비)도 4.4%로 정부 목표치인 3%를 훨씬 상회

최근 중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 대비 %)



자료: 국가통계국

□ 소비자물가 급등에 따라 임금상승 폭도 확대되면서 국내외에서 중국發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를 하기 시작

- '소비자물가 급등 → 임금상승 → 제조원가 상승 → 공산품가격 상승 → 인플레이션 심화'의 惡循環 고리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

- 2007년 2/4분기 제조업 임금상승률은 전년동기 대비 20.1%로 2000년 이래 최고치

- 앨런 그린스펀 前 美 FRB 의장은 "중국 수출품가격이 상승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국發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을 직접 경고

중국發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희박

- 최근의 물가급등은 돼지고기 등 주로 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서비스나 공산품 전반의 가격상승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
 - 2007년 1~10월 중 식료품 가격은 전염병 확산, 사료가 상승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1.3% 상승(특히 육류가격이 30.1% 급등)
 - 소비자물가지수의 구성항목 중 33.6%⁵⁾가 식료품⁶⁾
 - 식료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는 1~10월 중 1.0% 상승하는데 그쳤고 서비스물가도 1.7% 상승한 것으로 조사
 - 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생산성향상을 감안한 단위노동비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으며, 에너지 및 생산요소 가격에 대한 정부통제도 지속
 - 2000~06년 제조업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향상률은 17.5%로 임금 상승률(14.1%)을 상회
- 2008년 중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도 4.2%로 전망되는 상황이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
 - 수출단가도 위안貨의 대폭 절상이나 유가 급등이 없는 한 지나치게 오르지 않을 전망
 - 선진국의 경우 2008년 수급갭률⁷⁾이 -0.5%로 추정되어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국면⁸⁾

⁵⁾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식료품 비중은 15.4%

⁶⁾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 항목은 식료품 외에 담배·주류(14.4%), 주택(13.6%), 교통통신(9.3%), 의류(9.0%), 가정용품(6.2%) 등으로 구성

⁷⁾ (실제 GDP - 잠재 GDP) / 잠재 GDP × 100

⁸⁾ G7 기준(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07.)

3. 자산가격 버블은 붕괴될 것인가?

자산가격 급등의 주범은 과잉 유동성

□ 주가와 주택가격이 급등한 것은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진 것이 원인

- 總통화증가율 : 12.3%('00년) → 14.6%('04년) → 18.5%(2007년 1~10월)
-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2007년 10월 16일 사상 최고치인 6,124포인트를 기록했으며, 6월에는 개인구좌數가 1억구좌를 돌파했을 정도
 - GDP 대비 시가총액⁹⁾ 비중도 2005년말 17.4%에서 2007년 11월말 94.5%로 급등(시가총액 19.9조위안)
- 2007년 1~8월 중 전국 평균 주택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13.4% 상승
 - 부동산 개발에 유입된 외국자본도 2007년 1~9월 중 56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62.3% 증가

□ 자산가격 급등의 부작용인 버블붕괴에 대한 우려감도 점차 확대

- 상하이 주식시장의 주가수익률(PER)은 33배로 뉴욕이나 도쿄의 수준(20배)을 크게 상회하면서 버블論이 제기
- 대도시 주택의 임대수입 대비 판매가 배수¹⁰⁾가 지나치게 높아 부동산 가격에 거품(버블)이 끼어 있음을 시사
 - 주요도시별 임대수입 대비 판매가 배수 : 광저우 800 < 상하이 400 < 베이징 350

⁹⁾ 상하이주식시장과 선전주식시장의 시가총액 합계

¹⁰⁾ 임대수입 대비 판매가 배수가 300을 넘어서면 가격이 너무 높아 투자 가치가 작고, 200 이하이면 부동산 가치가 과소 평가되어 투자가치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

자산가격 버블의 붕괴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은 2008년 중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상승세가 둔화될 전망

- 주식시장은 2007년 11월 이후 이미 조정기에 진입

·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12월 6일 현재 5,035포인트로 고점 대비 17.8% 하락

- 부동산도 외국인의 부동산투자 제한¹¹⁾, 부동산 대출 억제 등의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상승세는 둔화될 전망

· 2주택소유자에 대한 담보대출 규모 제한 및 대출금리의 인상 등이 2007년 9월에 발표되고, 2008년에는 보유세도 도입될 예정

□ 그러나 2008년 중 자산가격의 버블붕괴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 중국정부의 입장에서 자산가격 급락은 은행 부실화나 사회불만으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에 주력

-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 유동성 공급이 지속

· 금융시장의 경우 아직 금리자유화와 채권시장의 활성화가 미흡해 정책금리 인상을 통한 유동성 축소에는 한계¹²⁾

- 도시유입 인구의 증가, 소득증대에 따른 고급주택 수요 증가도 지속

¹¹⁾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07년 11월 8일 발표한 '외국인 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고급 호텔, 별장, 고급 오피스빌딩의 건설 및 경영, 부동산 중개 등은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으로 지정

¹²⁾ 2007년 중 1년 만기 대출금리 및 지급준비율이 각각 1.17%p, 4.5%p 인상되었으나 총통화(M2) 증가율은 18.5%로 경제성장률을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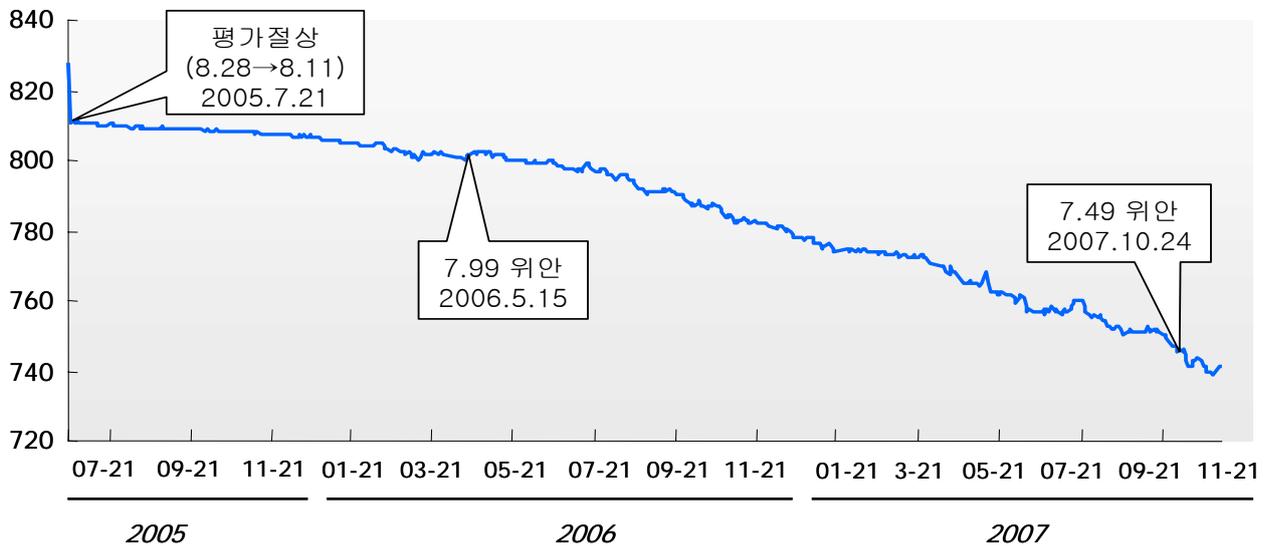
4. 위안貨의 切上 가능성 및 그 幅은?

현재 위안/달러는 低평가된 상태

□ 2005년 7월 환율제도를 변경¹³⁾한 이후 위안/달러 환율은 완만하게 절상

- 절상률 : 2005년 2.5% → 2006년 3.3% → 2007년 1~11월 5.5%

위안/달러 환율의 추이



자료: 중국인민은행

□ 그러나 구매력이나 실질실효환율 등을 고려한 위안/달러 환율은 아직도 低평가된 상태

- 실질실효환율지수¹⁴⁾도 2007년 6월 현재 94.8로 低평가¹⁵⁾

· 동지수가 100을 밑돌면 低평가, 100을 상회하면 高평가를 의미

¹³⁾ 2005년 7월 21일 종전의 달러화에 대한 고정환율제를 복수통화 바스켓제로 바꾸고 위안화의 일일 환율변동폭을 ±0.3%로 결정하면서 위안/달러 환율을 2.1% 평가절상

¹⁴⁾ 실질실효환율지수는 통화 바스켓 구성 11개국의 물가수준과 무역비중을 반영해 산출한 것으로 기준 시점은 1999년 1월

¹⁵⁾ 미즈호總合研究所, "미즈호 아시아·오세아니아 인사이트", 2007.9.25.

선진국의 切上 압력은 높겠지만 급격한 切上은 기대 難

□ 2007년 1~9월 무역흑자 누계가 1,856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

※ 對美 무역흑자는 1,187억달러(전년동기 대비 16.1% 증가)
對EU 무역흑자는 949억달러(전년동기 대비 42.5% 급증)

□ 한편 2008년에도 2,900억달러의 무역흑자가 예상되어¹⁶⁾ 위안貨에 대한 切上 압력은 한층 거세질 전망

- 2007년 10월 19일 G7 재무장관회의에서 "위안貨는 빠르게 절상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도

□ 그러나 경제안정을 중시하는 중국정부의 의지도 확고해 급격한 위안貨 切上은 기대하기 힘든 실정

-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외환시장의 기능을 강화하며 점진적으로 환율 변동폭을 확대¹⁷⁾하겠다"고 천명

- 다만 막대한 무역흑자와 과잉 유동성 등을 막기 위해서 예년보다는 다소 높은 7~8% 수준의 切上은 용인할 것으로 전망

위안貨 切上에 대한 주요 기관의 예측치

(단위: 달러당 위안, %)

구분	2007년말	2008년말	절상률
중국국제금융유한공사	7.30	6.79	7.0
골드만 삭스	7.35	6.78	7.8
Global Insight	7.35	6.74	8.3
삼성경제연구소	7.34	6.76	8.0

자료: 각 기관 보도자료 종합

¹⁶⁾ 2007년 추정치는 2,600억달러(중국사회과학원, 『2008 經濟藍皮書』, 2007.12.6.)

¹⁷⁾ 2007년 11월 2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과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의 발언

5. 외국기업의 경영환경은 더욱 나빠질 것인가?

외국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

□ 1978년 개혁개방 이래 중국정부는 외국기업 유치 및 외국인투자 확대에 주력한 결과, 중국은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위의 FDI(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국으로 부상

- 외국기업에 대한 세율 인하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하자¹⁸⁾ 세계 각지의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

· FDI(억달러) : 35(1990년) → 468(2001년) → 630(2006년)

□ 그러나 WTO 가입 이후에는 과거 중국경제 발전의 일등공신으로 여겨졌던 외국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서서히 확산

- 시장이 거의 개방된 현 상황에서 외국기업에만 특혜를 준다는 것은 중국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시각이 팽배

- 중국정부는 외국기업의 저부가가치 임가공수출이 무역마찰을 심화시킨다고 주장

· 2007년 상반기 중국 가공무역액의 84.2%(3,713억달러)가 외국기업

· 중국 무역수지 흑자의 절반 이상(52.4%)을 외국기업이 차지

- 핵심기술의 이전은 꺼리는 반면, 환경오염, 뇌물수수 등 각종 불법 행위가 빈발하는 점도 부정적 인식 형성에 일조

· IBM, 파나소닉 등 다수의 다국적기업이 불법행위로 적발¹⁹⁾

¹⁸⁾ 경제특구 입주 외국기업의 경우 15%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거기에다 '2免 3減(2년간 법인세 면제, 3년간 감세) 등의 혜택을 추가

¹⁹⁾ IBM은 建設銀行에 대한 뇌물 제공으로 2007년 1월에 적발되었고 파나소닉도 2006년 환경오염 시설 미설치로 적발됨

외국기업의 경영환경은 악화될 전망

□ 2008년에는 노동계약법과 반독점법이 본격 실시되고, 환경규제도 강화

- 종신고용, 서면계약 의무화, 퇴직금 신설,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노동계약법의 실시는 외국기업에게는 큰 부담
 - 근로계약을 3회 연속 맺으면 기업은 근로자의 종신고용을 보장해야 하고, 계약만료 전 퇴사시 퇴직금 지급도 의무화
- 반독점법의 실시로 통신, 전자, IT 등의 분야에서 중국시장을 장악한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²⁰⁾
- 환경관련 법규 강화²¹⁾, NGO 등을 활용한 외국기업에 대한 환경감독도 경영상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NGO인 공중·환경연구센터가 2006년 6월 발표한 환경오염 기업에 마쓰시타, 펩시, 네슬레 등 다국적기업 33個社가 포함
- 국내외 기업간에 차별 적용되어 왔던 법인세율이 25%로 단일화되어²²⁾ 2008년부터 시행되고,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

□ 이에 따라 일부 외국기업의 경우 이미 감원에 착수했거나 생산거점을 점차 이동하는 조짐이 뚜렷

- 신규 노동법 실시 이후의 감원비용을 줄이기 위해 월마트는 2007년 1,000명을 미리 감원하고 노키아, 지멘스도 각각 300명을 감원
- OLYMPUS(일본 카메라 제조업체)는 2009년 중국 현지공장 2개를 1개로 축소하고, 베트남에 약 1억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세울 방침

²⁰⁾ 반독점법은 시장 독과점 업체에 대한 규제, 중국기업 M&A시 당국의 허가 취득 등을 명시

²¹⁾ 2008년 상반기에 자원 절감과 폐기물, 폐수 등의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순환경제법'을 입법할 계획

²²⁾ 법인세율은 중국기업 33%, 외국기업 15~30%이었으나 2007년 개정 법안에서 이를 25%로 단일화

6. 중국 금융자본의 해외진출은 본격화될 것인가?

금융자본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은 구축

- 대규모 무역흑자에 따른 외환보유고 확대,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²³⁾ 등으로 여유자금이 풍부해 금융자본의 해외진출은 확대되고 있으나, 투자수익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
 - 2006년 이후 건설은행, 공상은행, 중국투자공사 등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이 확대
 - 2006년 중국의 해외투자²⁴⁾는 2,395억달러로 전년대비 84.5% 증가했으나 해외투자로 거둬들인 수익 규모는 98억달러에 불과²⁵⁾

최근 중국 금융기관의 해외투자 사례

투자기업	투자대상 기업	규모	일시
中國建設銀行	BOA(홍콩, 마카오)의 retail bank 사업 인수	12억달러	2006년 8월
中國投資公司	블랙스톤(미국)의 지분 9.7% 인수	30억달러	2007년 5월
國家開發銀行	바클레이즈(영국)의 지분 3.1% 인수	22억유로	2007년 7월
工商銀行	스탠다드은행(남아공)의 지분 20% 인수	56억달러	2007년 10월

- 외환보유고 운영의 효율성 제고, 과다 외환보유로 인한 부작용 해소 등 금융자본의 해외진출 필요성은 날로 커지는 상황
 - 美 국채에 주로 투자하는 기존방식으로는 수익성을 높이기 어렵고, 세계경제에서의 위상 강화 및 선진 금융기법 도입 등도 절실
 - 과다 외환보유로 위안貨 切上 압력, 자산가격 급등 등의 부작용도 야기
 - 현재 외환보유고는 적정수준(3개월 수입액)의 5.4배

²³⁾ 공상은행(工商銀行)은 2006년 10월 홍콩, 상하이 증시 동시 상장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191억달러의 자금을 조달

²⁴⁾ 해외투자는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업간신용(trade credit), 기타 투자 등으로 구성

²⁵⁾ 국가외환관리국(國家外換管理局)

금융자본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전망

- 2007년 들어 QDII(적격해외기관투자자)²⁶⁾, 소버린 펀드 등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완화가 진전되어 해외진출이 확대
 - 2007년 5월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은행이 QDII를 통해 해당펀드 총자산의 최고 50%를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 증권회사, 펀드회사, 보험회사 등도 QDII 투자를 허용²⁷⁾
- 중국정부는 투자수익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처를 다양화하고, 투자주체도 국부펀드, 사모펀드, 민영 금융기관 등으로 다원화할 계획
 - '외환보유고 1조달러 시대'로 진입하면서 투자수익률 향상을 위해 美 국채 투자 이외에 새로운 투자처 발굴이 시급
 - 2007년 9월말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인 중국투자공사(CIC)가 자본금 2,000억달러로 설립되어 2008년부터 해외투자를 본격화할 전망
 - 최대 연기금인 중국사회보장기금(자산규모 615억달러)도 해외투자를 확대할 예정
- 미국 등 글로벌 금융기관의 자금경색도 중국자본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자금조달이 어렵게 된 미국 금융기관들이 차이나 머니의 적극 유치에 나설 전망
 - 베어스텐스는 2007년 10월 中信銀行과 10억달러 전환사채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11월 Citic Securities와는 지분을 교차 소유

²⁶⁾ QDII(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는 기금(펀드)투자를 통해 해외자본시장에 투자하도록 허용받은 국내기관투자자

²⁷⁾ 증권보험감독위원회는 12월 3일 중국 2위 보험사 平安保險이 총자산의 15%를 해외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7. 중국기업의 글로벌화는 가속화될 것인가?

글로벌화 성과는 아직 미흡

□ 해외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세계적 규모의 글로벌 기업도 증가

- 2006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금융 제외)는 178억달러로 2001년 대비 약 36배 확대
 - 2007년 상반기 해외직접투자도 78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1.1% 증가
- 포천 글로벌 500大 기업에 포함된 중국기업은 2000년 10個社에서 2007년 24個社로 증가

□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중국기업의 글로벌화 성과는 아직 미흡

- 포천 글로벌 500大 기업에 포함된 중국기업은 기간산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국영기업이 대다수
 - 중국석유화공(17위), 중국이동통신(180위) 등이 대표적
- 하이얼(海爾), TCL 등 가전, IT기업들은 성장이 정체되면서, 포천 글로벌 500大 기업 진입에 실패
 - 브랜드력 제고, 핵심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추진했던 선진기업의 인수도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²⁸⁾
- 이는 중국기업의 브랜드 파워가 약한데다가 중국제품의 품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기 때문
 - 특히, 품질불량 문제는 중국기업의 글로벌화에 최대 걸림돌²⁹⁾

²⁸⁾ TCL의 경우 2003년 브랜드파워 제고를 위해 RCA를,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톰슨을 각각 인수했으나 북미시장에서 RCA의 브랜드 파워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톰슨의 핵심기술은 신기술로 대체

²⁹⁾ 2007년 11월 중국정부가 완구수출기업 1,074個社의 수출자격을 취소할 정도로 품질문제가 심각

2008년 중 글로벌화는 가속화될 전망

- 기업의 수익성 제고, 정부의 글로벌화 장려, 베이징올림픽 등을 계기로 해외진출은 2008년에 더욱 확대될 전망
 - 2007년 1~8월 제조기업의 영업이익은 1조 5,623억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37.0% 증가
 - 2007년 10월 당대회에서 기업의 글로벌화를 주요 과제로 채택
 - 후진타오는 기업의 글로벌 경영을 적극 지원해 '글로벌 중국기업', '글로벌 중국브랜드'를 육성하겠다고 천명
 - 기업들도 베이징올림픽을 브랜드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동참³⁰⁾
- 화웨이(華爲), 치루이(奇瑞) 등 기술과 브랜드를 갖춘 기업들을 중심으로 글로벌화가 적극 추진될 전망
 - 화웨이는 R&D 역량강화, 글로벌업체들과의 전략적인 제휴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
 - 2003년 미국의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3COM과 화웨이3COM을 합작 설립했으며 최근에는 3COM 인수를 추진
 - 중국 최대의 승용차 수출업체인³¹⁾ 치루이도 해외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
 - 구미시장 공략을 위해 2007년 7월 크라이슬러와 제휴관계를 구축한데 이어 8월에는 피아트와 합작기업 설립의 양해각서를 체결

³⁰⁾ 중국기업 중 레노보는 11개 글로벌 파트너십 업체 중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며 중국이동통신은 올림픽 파트너십을 획득하고, 하이얼(海爾)은 올림픽 협력업체로 선정

³¹⁾ 2006년 치루이는 승용차 5만대를 수출해 1위를 기록했고, 2위는 혼다(2.5만대), 3위는 지리(1.2만대)

8. 베이징올림픽은 국격(國格) 제고의 기회가 될 것인가?

베이징올림픽 이미지로 '綠色', '科學', '人文'을 강조

□ 베이징올림픽의 캐치프레이즈로 '綠色', '科學', '人文'을 설정함으로써 베이징의 환경개선을 강조하고, 중국의 첨단기술과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홍보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화

- 도시녹화, 수질개선 등 환경보호에 100억달러 이상을 투입
- 자체 표준인 TD-SCDMA³²⁾ 기반의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체 모바일 표준 CMMB³³⁾를 통해 올림픽을 시청하도록 조치
- 중국인(印)의 올림픽 엠블럼, 금양옥(金鑲玉) 메달 디자인 등을 통해 중국 문화를 홍보

중국 전통문화의 홍보전략

- ▷ 올림픽 엠블럼은 '중국인(印)'을 의미하는 도장
 - 사람 '인(人)'과 문화의 '문(文)'을 합해 의인화하여 글자를 전각한 것으로 인문(人文) 올림픽을 상징
- ▷ 메달은 금양옥(金鑲玉)으로 디자인했는데, 이는 중국에서 富를 상징하는 '玉'과 權威를 상징하는 '金'을 조합해 만든 것
- ▷ 중국은 올림픽 개막식을 2008년 8월 8일 오후 8시로 정했는데 이는 '八'이 '돈을 벌다'는 의미의 '發'과 음이 비슷한吉한 숫자이기 때문



□ 올림픽 특수, 인프라투자 확대 등으로 2005~08년간 실질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0.4%p 제고시키고, 연인원 30만명 이상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³⁴⁾

³²⁾ TD-SCDMA는 따탕(大唐)전신 등이 개발한 3세대 이동통신의 기술 표준

³³⁾ 중국 국가광전총국(國家光電總局) 산하의 방송과학원에서 개발한 모바일 방송 표준

³⁴⁾ 중국통계국 추정치

베이징올림픽은 國格 제고에 일조할 듯

□ 경제적인 효과 이외에도 올림픽 개최는 중국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여 국격(國格)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전망

- 경제발전 뿐만 아니라 強大國으로서의 이미지를 세계에 각인시키고 환경오염국, 후진국, 공산국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상당 부분 완화
- 특히 인권신장 및 사회통합 등의 모습을 과시하면서 인권탄압국, 시위빈발국이라는 오명을 해소
 - 사전에 인권 문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올림픽은 오히려 중국에 대한 국제적 비난의 장으로 전락할 수도 있음
 - 중국정부가 올림픽 엠블럼으로 '인간의 형상'을 채택하고, 장애인 올림픽에도 지대한 공을 들이는 것은 인권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

□ 중국경제의 대외영향력 확대와 질적 발전에도 일조할 전망

- 중국을 주축으로 한 '中華경제권'³⁵⁾의 부상을 촉진
 - 올림픽을 통해 중국의 國格이 제고되면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 문화·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에 대해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
 - 자원확보, 해외시장 개척 등 경제외교도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
- 新기술 확산, 기업의 브랜드 파워 제고, 서비스업 발전에도 일조
 - 올림픽을 통해 TD-SCDMA와 CMMB 등의 보급이 확산
 -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보한 레노보는 올림픽마케팅 전담부서 '레노보 007'의 운영 등을 통해 기업의 브랜드 파워를 높일 계획 

³⁵⁾ 문화적 유대를 중심으로 중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를 아우르는 경제권

【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

< 금융동향 >

	12. 04	12. 05	12. 06	12. 07	12. 10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922.5	923.3	922.1	919.2	923.6
	엔/달러(뉴욕시장)	110.43	109.84	110.95	111.33	111.44
금리	회사채(3년AA-, %)	6.53	6.70	6.70	6.81	6.81
	국고채(3년, %)	5.82	6.00	6.00	6.11	6.07
주가지수(KOSPI, 종가)	1,917.83	1,938.20	1,953.17	1,934.32	1,906.42	

< 실물동향 >

(전년동기(월)비, %)

	2005년	2006년	2006.12월	2007. 8월	9월	10월	11월
GDP성장률 ¹⁾	4.2	5.0	..	5.2
민간소비	3.6	4.2	..	4.7
설비투자	5.7	7.6	..	1.6
산업생산 증가율	6.3	10.1	3.0	11.2	0.3	17.8	..
평균가동률	79.7	81.1	80.5	83.5	80.6	83.4	..
실업률	3.7	3.5	3.3	3.1	3.0	3.0	..
실업자(만명)	88.7	82.7	78.4	75.6	71.9	73.3	..
전국 어음부도율	0.04	0.02	0.03	0.02	0.02	0.03	..
소비자물가 상승률	2.8	2.2	2.1	2.0	2.3	3.0	3.5
수출(억달러, FOB) ²⁾	2,844.2	3,254.6	287.8	310.0	293.4	345.0	359.5
(증감률)	(12.0)	(14.4)	(12.3)	(13.6)	(-1.1)	(23.1)	(17.5)
수입(억달러, CIF)	2,612.4	3,093.8	275.2	296.3	271.0	326.1	338.5
(증감률)	(16.4)	(18.4)	(13.8)	(9.6)	(-1.9)	(27.3)	(26.5)
경상수지(억달러)	149.8	60.9	1.5	5.7	23.0	25.6	..
외환보유액(억달러)	2,103.9	2,389.6	2,389.6	2,553.0	2,572.9	2,601.4	2,619.3
총대외지불부담 ³⁾ (억달러)	1,879	2,634

1) 한국은행 2007년 12월 3일자 '2007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2) 산업자원부 수출입 동향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3)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기준, 분기별 발표.